



최근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달러 약세 배경과 원화 가치 상승

- 연초이후 원화는 달러 대비 2.8% 상승, 위안화(1.5%), 엔화(0.9%)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압력이 강하게 발생.
- 반면, 달러지수는 -1.6% 하락, 지난해 5월 이후 약 8개월만에 100pt 선에 근접.
-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로 인해, 연준의 양적긴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 달러가치의 하락에 영향.
- 달러 유동성 문제와 연결되어 FX스왑시장에 영향. 원화 강세에 유리한 여건으로 반영.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로 연준의 통화정책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달러 유동성 및 달러자금시장에 영향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원화 강세를 지지해주는 현상들

- FX스왑시장에서의 변화는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가 낮아지며, 미국의 금융상황지수가 완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작용.
- 통화가치 변동성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리스크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FX스왑시장에서도 원화에 대한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
- 베이스스왑의 상승 흐름이 확인되며, 역외 달러 조달 여건이 호의적인 국면으로, 원화 강세를 지지..

미국의 금융상황지수는 원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유동성 공급 환경에도 영향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달러 약세 배경과 원화 가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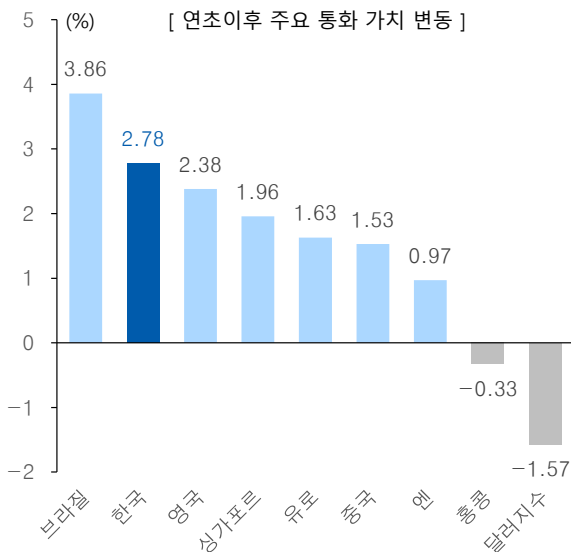
연초이후 원화는 달러 대비 2.8% 상승하였는데, 위안화(1.5%), 엔화(0.9%)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압력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달러지수는 -1.6%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5월 이후 약 8개월만에 100pt 선에 다가가고 있다.

최근 달러가치의 하락과 원화의 강세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이 중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로 인해, 연준의 양적긴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달러가치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화는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

만약 재무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이 연준에 예치해 두는 지준금이 감소할 경우 양적 긴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달러 유동성 및 단기자금시장에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해 FX스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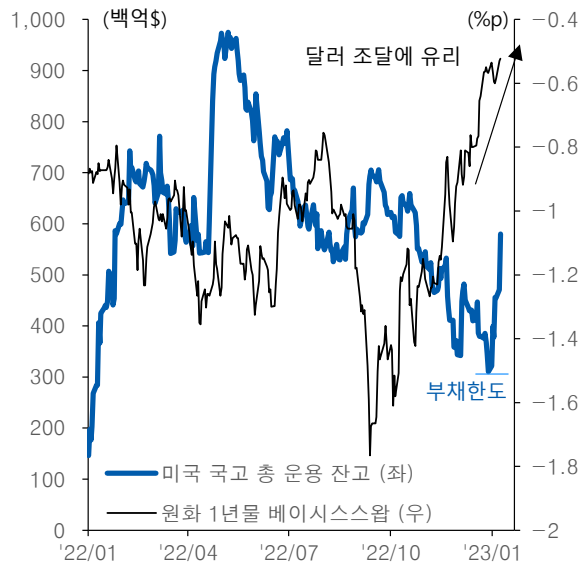
연초 이후 FX스왑시장에서의 여건은 원화 강세에 유리한 여건으로 반영되고 있다. 연초 이후 변화들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원화 강세의 지속성과 레벨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원화의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1] 주요 통화 중, 연초 이후 원화의 가치는 달러대비 2.78% 상승. 달러지수는 -1.57% 하락.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1월 26일 기준

[차트2] 미국의 부채한도 이슈로 인해 연준의 통화정책 차질 예상됨에 따라, 달러 유동성 및 달러자금시장에 영향.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원화 강세를 지지해주는 현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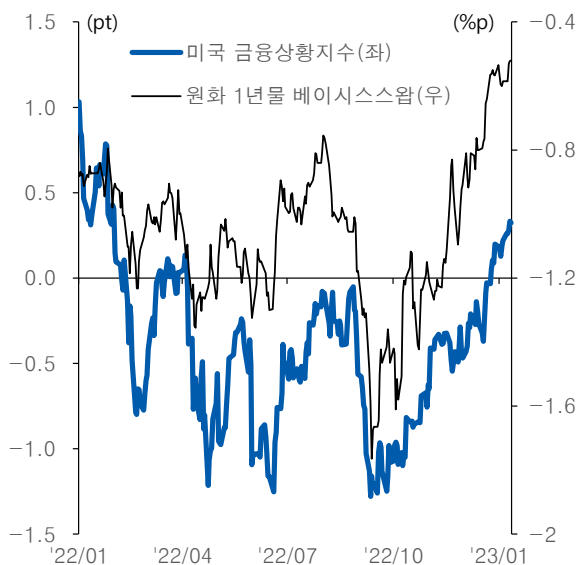
FX스왑시장에서의 변화는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극단적 경계가 낮아지며, 미국의 금융상황지수가 완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안정되었다.

통화가치 변동성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미국 내 리스크 지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FX스왑시장에서도 원화에 대한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X스왑은 내외금리차 대비 높아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베이스스스왑 역시 지난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에 있으며,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장기물 역시 최근 10년 기간 동안 중 가장 높은 영역에 있다. 즉, 역외 달러 조달 여건이 호의적으로 변화하며 원화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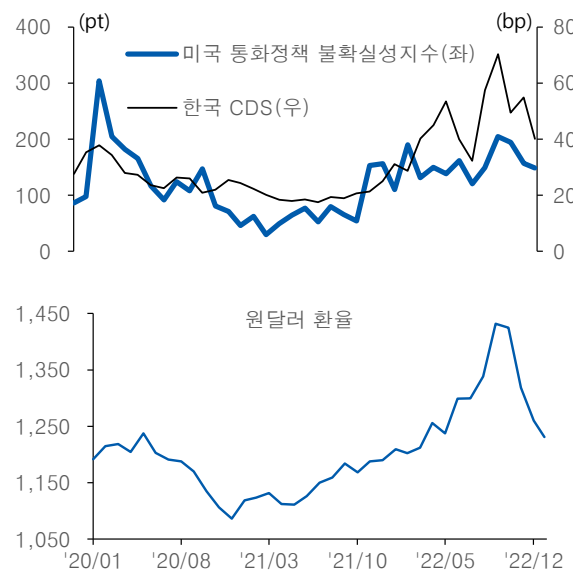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금리시장의 여건과 심리 변화에 따라 원화는 강세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주 FOMC까지 발생할 블랙아웃으로 최근 흐름에서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고조되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 변화와 국내 매크로 환경의 개선으로 원화의 강세 기조는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차트3] 미국의 금융상황지수는 완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유동성 공급 환경에도 영향.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연준의 스탠스 변화와 국내 경제의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리스크 지표들도 안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